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

## 한국인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

최지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본 연구는 다문화화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변화를 다면적으로 분석하였다. 2015년 전후로 나타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인 태도는 2020년 조사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인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무지는 감소하였으나, 일자리 경쟁 등 실질적·제도적 이유로 인한 다문화 냉담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에 대한 감정적·호소적 접근 대신 다문화사회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담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I. 서론

사상 처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돌파하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가 외국인인 시대가 도래하였다(법무부 2019)<sup>1)</sup>. 통상 학계에서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사회로 분류하므로,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적인 다문화 국가의 문턱에 다다른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은 2007년 8월 전후로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 열풍”이 불었다.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8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과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법률화되

1) 2019년 12월 말 체류 외국인은 252만 4천 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6.6% 늘어났다.



었다(황정미 2010). 또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마다 다문화 전담 부서가 신설되면서(오경석 2010) 정부가 다문화 관련 중복 사업을 벌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한건수 2010). 당시의 다문화 열풍은 글로벌화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발맞추고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를 곧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으로 상정하고, 다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논쟁에 대한 담론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정치적·학술적 입장에 관계없이, 갈등이나 균열을 그다지 겪지도 않은 채” 마땅히 옳은 것이라는 막연한 담론으로 존재해왔다(김혜순 2006).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결혼이주여성 등 일부 이주민에게만 지원 정책이 집중되는 ‘관주도 다문화주의(김희정 2007)’, ‘문화 없는 다문화(엄한진 2006)’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황정미 2010).

다문화의 다층적인 면이 토론되지 못한 채 다문화주의가 한국 사회 주류 선(先)주민이 이주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여러 위험성을 지닌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인종과 국적이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도덕’, ‘인권’ 등의 개념뿐만 아니라 복잡미묘한 현실의 문제를 건드린다. 다문화주의를 체계적으로 다뤘은 대표적 이론가인 킴리카(Kymlicka)는 대부분의 소수 이주민 집단은 그들만의 자치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존속시키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류 사회가 소수 문화에게 다양한 집단차별적(group-differentiated)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Kymlicka 1995; 설한 2010). 지난 수십 년간 다문화 흐름을 전개해 온 미국과 서구 유럽에서도 치열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진통을 겪어왔으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 잇따라 자국의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국민일보 2011).

다문화에 대한 논쟁은 묻어둔 채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 열풍을 겪은 한국인은 외국인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들을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오경석 2010). 학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순진한(naive) 온정주의적 태도 이면에 여러 다문화 갈등이 잠복해있음을 경고하고,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해왔다(한건수 2010).

실제로 2015년을 전후로 한국에서는 ‘다문화 피로도’와 ‘다문화 혐오증’이 관찰되고 있다(윤인진 2016).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한국 주류 선주민과 이주민 간 접촉 역시 활발해졌고, 일자리 경쟁, 위장 결혼, 문화 충돌, 외국인 범죄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2012년 오원춘과 박춘봉이 한국인 여성을 잔혹하게 토막 살인한 것은 중국 동포(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겼으며, 많은 미디어와 영화에서 조선족이 범죄자로 묘사되거나 조선족 밀집 지역이 범죄 소굴로 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2015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는 한국인이 다문화에 대한 과거의 온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문화 사회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으며, 다문화 국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미 2016).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2015년에서 관찰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미온적



인 태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 발생한 국제적 변수와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15년~2016년 유럽을 뒤흔든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 다양성을 미덕으로 삼았던 미국에서 자국 우선주의 ‘American First’를 내건 트럼프의 당선, 2018년 제주도 난민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은 국제 사회는 개방보다는 보호에, 교류보다는 자국민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일률적일 수 없을 것이며, 다문화주의에 대한 선호도나 이민자 수용성 이면에도 복합적인 사고가 작용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다문화주의에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다문화를 지양하는지 등을 질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다문화화 인식,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여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동아시아연구원과 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조사를 사용하였다. 표본은 2020년 4월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과 무작위 추출을 거쳐 표집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5월 6일부터 27일까지 한국리서치 면접원에 의한 대면 면접 조사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10,003명의 응답자가 확보되었다. 또한, 한국리서치가 동일한 표집 방법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시행한 2005년(표본 1,038명), 2010년(표본 1,091명), 2015년(표본 1,006명) 조사의 응답을 함께 비교하여 한국 다문화화의 장기적 흐름과 2020년에 두드러지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 한국인의 다문화화 인식 변화

### 1.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 변화

〈표 1〉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 변화(2010~2020)

(단위: %)

보기	2010년	2015년	2020년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	37.1	38.7	39.1
다민족·다문화국가	60.6	49.6	44.4
잘 모르겠다	2.4	11.7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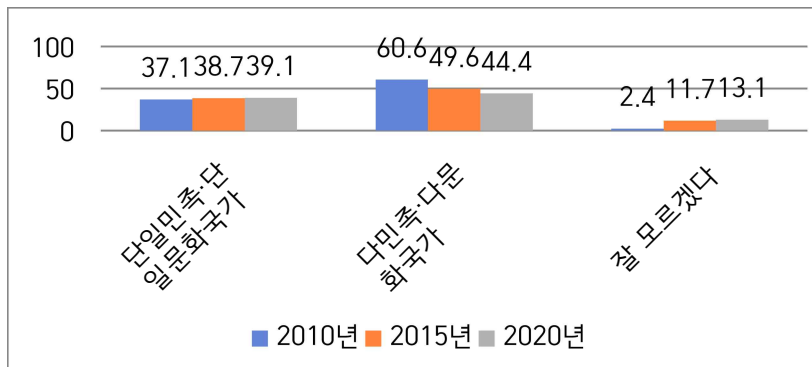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단일민족·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임.

한국인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를 희망할까?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와 다민족·다문화국가 중 선호하는 국가 방향을 조사한 결과, 위의 질문에 대해 지난 10년간 주목할만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2010년에는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보다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2015년과 2020년에는 다문화 국가를 지향한다는 답변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40%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과 2020년 각각 11%p, 16.2%p 하락한 수치로,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비율이 일관되게 감소해왔을 뿐만 아니라 감소 폭 역시 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한 비율 역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한국이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 변화(2010~2020)

(단위: %)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2010년 조사에 비해 2015년과 2020년 약 5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이 다문화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긍정 또는 부정 의견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증가해왔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해왔으며, 다문화화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는 증가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 국내 체류 외국인인 250만 명, 다문화 가구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고 인구의 2%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며 그 숫자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통계(통계청 2019)와 다소 상반된다. 그렇다면 다문화 국가에 대한 태도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기인한 것이며, 한국인이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2. 다문화 수용성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점을 인지하는 비율은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어느 국가든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51.8%)은 반대하는 비율(17.2%)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찬성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한, 찬성하는 비율과 반대하는 비율 간 차이 역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문화를 통한 문화 다양성과 이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는 진술에 대한 찬성 응답은 앞의 문항보다 절대적인 비율은 낮았으나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한국인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다문화의 장점을 더욱 많이 인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외국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가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한계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는 앞에서 외국인으로 인한 문화 다양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로, 타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의 문항을 살펴보면, 긍정 응답 비율(26.8%)이 2015년(29.8%)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 비해 증가(24.3%)하였다. 이는 2020년 응답자들이 외국인에게 2010년보다 강력한 문화 동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35.1%) 역시 2010년(43.6%)과 2015년(40.5%)에 비해 하락하여 외국인



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감소해왔다. 또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37.9%)이 3개년 중 가장 높아 타문화 수용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가 10년 전(31.7%)과 비교했을 때 강화되었다. 매 조사에서 외국인이 자신의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응답보다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대답이 많기는 하지만, 찬성 비율과 반대 비율 간 차이가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는 외국인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한국 사람과 동일한 권리와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 조사에서 해당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였고, ‘그저 그렇다’와 ‘부정’ 비율 증감은 일관되지 않으나 2020년에서 유보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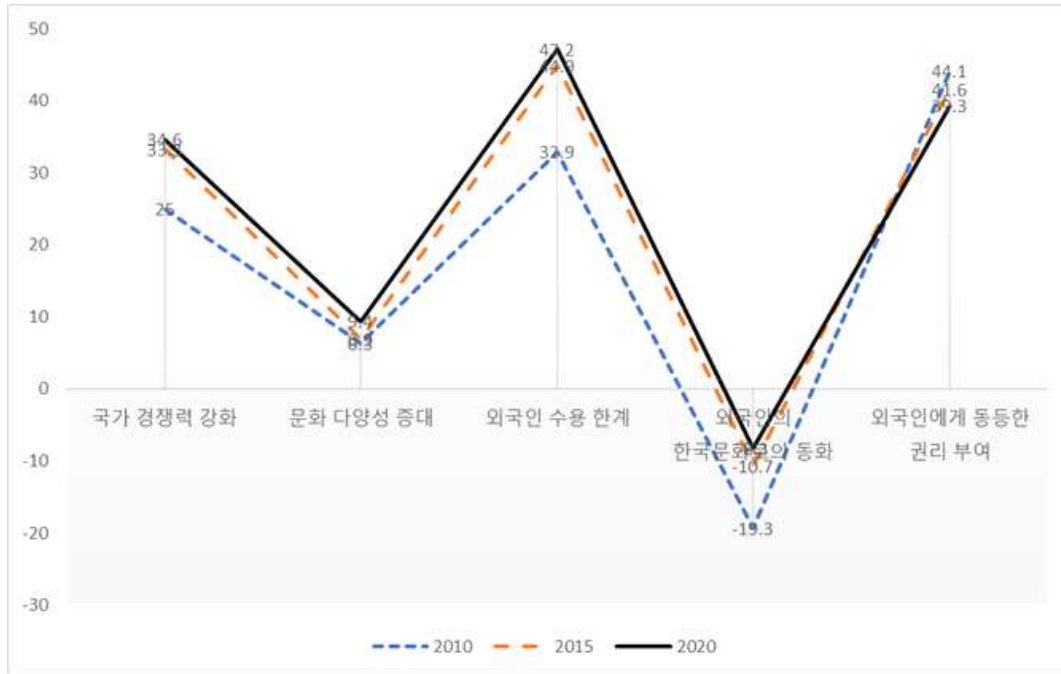
(단위: %)

보기	조사 년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긍정- 부정% 차이	모름/ 무응 답
어느 국가든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2010	6.7	41.1	47.8	29	19.7	3.1	22.8	25	0.4
	2015	8.3	42.1	50.4	32.6	15	2.1	17.1	33.3	0
	2020	7.2	44.6	51.8	31.1	15.9	1.3	17.2	34.6	0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2010	4.5	29.1	33.6	38.9	23.6	3.7	27.3	6.3	0.2
	2015	4.8	29.6	34.4	38.1	24.3	3.2	27.5	6.9	0
	2020	6.2	28.3	34.5	40.4	22.7	2.4	25.1	9.4	0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10	5.8	43.1	48.9	34.9	14.4	1.6	16	32.9	0.1
	2015	8.8	48.1	56.9	31.1	10.8	1.2	12	44.9	0
	2020	9.2	47.9	57.1	33.1	9.7	0.1	9.8	47.2	0.1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2010	4	20.3	24.3	31.7	34	9.6	43.6	-19. 3	0.2
	2015	4.7	25.1	29.8	29.7	32.7	7.8	40.5	-10. 7	0
	2020	3.2	23.6	26.8	37.9	30	5.1	35.1	-8.3	0.2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이나 사회보장에서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	2010	12.4	43.6	56	32.1	10.5	1.4	11.9	44.1	0
	2015	14.4	41.2	55.6	30.4	11.5	2.5	14	41.6	0
	2020	9.2	42.9	52.1	35.1	9.2	3.5	12.7	39.3	0.2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그림 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2010~2020)  
(긍정 응답 비율과 부정 응답 비율의 차이)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문항들을 살펴보았다. 2015년 조사에서 출신국에 따라 차별적이고 위계적으로 이주민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국익에 도움이 되면 수용하고 위협이 되면 배제하는 조건적 태도와 외국인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윤인진 2016)가 2020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가장 두드러진 문항은 외국인에 대한 느낌이 출신국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2020년에는 찬성 비율이 58%에 달했고 반대 비율은 12.6% 뿐이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한국인이 출신국과 피부색에 따라 외국인을 서열화하며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김영란 2013; 채영길 2010; 김은미 외 2015).

한편 외국인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몇 가지 주목할만한 특징이 발견되었다. 2020년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문항에서 동의하는 비율은 48.9%로, 여타 3개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은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긍정 비율과 부정 비율 간 차이 역시 5년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다문화사회 범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실제 통계에 비해 상당 부분 과장되는 경향을 반영하지





만, 동시에 이러한 과장된 인식이 5년 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외국인의 유입을 일자리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인식한 비율은 2020년 42.7%로, 조사된 4개년 중 가장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범죄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실질적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한국인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2005~2020)

(단위: %)

보기	조사 년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긍정	그저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부정	긍정- 부정% 차이	모름/ 무응답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이다	2005	6.1	25.6	31.7	35.7	25	5.5	30.5	1.2	2.1
	2010	6.5	41.5	48	34	16.1	1.6	17.7	30.4	0.3
	2015	9	43	52	31	15	2	17	35	0
	2020	14.6	52.2	66.8	23.3	9	0.8	9.8	57	0.1
나는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2005	5.8	24.4	30.2	26.9	19	22.5	41.5	-11.3	1.3
	2010	5.4	27.1	32.5	35.4	20.6	11.3	31.9	0.6	0.3
	2015	7.9	36.4	44.3	32.1	18.3	5.3	23.6	20.7	0
	2020	10.6	33.7	44.3	33.8	16.9	4.9	21.8	22.5	0.1
나는 같은 외국인이라도 출신나라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2005	9.6	46.3	55.9	25.3	12.9	3.2	16.1	39.8	2.7
	2010	9.1	47.5	56.6	31.9	10	1.4	11.4	45.2	0.2
	2015	10.3	47.5	57.8	30.3	9.6	1.8	11.4	46.9	0
	2020	10.6	47	57.6	29.6	10.2	2.4	12.6	44.9	0.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 위협받고 있다	2005	7.8	31.6	39.4	28.6	22.7	7.5	30.2	9.2	1.9
	2010	6.3	34	40.3	34.7	20.4	4.4	24.8	15.5	0.3
	2015	7.1	31	38.1	33.5	25.2	3.1	28.3	9.8	0
	2020	5.8	36.9	42.7	32.2	22.5	2.6	25.1	17.6	0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2005	-	-	-	-	-	-	-	-	-
	2010	7.5	42	49.5	34.7	13.3	1.8	15.1	34.4	0.6
	2015	10.1	42.1	52.2	30.4	15.4	2	17.4	34.8	0
	2020	6.9	42	48.9	34.8	14.6	1.7	16.3	32.6	0.1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	2005	2.8	27.2	30	-	50.3	16.2	66.5	-36.5	3.5
	2010	4.2	36.5	40.7	-	50.2	8.7	58.9	-18.2	0.3
	2015	4.9	29.3	34.2	-	53.6	12.2	65.8	-31.	0



									6	
	2020	3.9	29.7	33.6	33.6	53.3	13.1	66.4	-32.8	0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마찬가지로,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2020년 대답을 보면 2005년에 비해 긍정 비율은 대폭 상승하였고, 부정 비율은 대폭 감소하여 외국인에 대한 무지와 막연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보다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살펴본 결과, 문항에 대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에 비해 두 배가량 많았다. 추세를 살펴보면 긍정 응답은 2005년에서 2010년 증가하였다가 10년간 다시 하락하였고, 부정 응답은 2005년에서 2010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20년(66.4%)에는 2005년(66.5%)과 유사한 수준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의 문항에 동의한 비율이 2020년 66.8%로, 직전 조사인 2015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해당 문항에 대한 부정 응답과 ‘그저 그렇다’ 응답이 감소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진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인식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몇 가지 추정해볼 수 있는데, 먼저 미디어에 외국인이 자주 등장한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과거에는 TV에 출현하는 외국인이 주로 불법체류자나 결혼이주자로 가난하고 슬픈 모습이 부각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전문성과 매력을 겸비한 외국인 패널이 등장하고 있다. 미디어가 외국인에 대한 관념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Hall 1981; 김초화·김도연 2019), 이러한 현상과 한국이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조사가 이루어진 2020년 5월은 코로나19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사실상 모든 담론을 점령하였던 시기이다. 특히 한국은 우수한 방역과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방역 모범 국가’, ‘선진 국가’로의 위상이 올라갔다. 또한, 평소 한국인들이 선진국가 모델로 선망했던 서구 사회가 잇따른 초기 대응이나 감염 확산 방지에 실패하면서 한국의 방역 성과가 더욱 부각되었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95.9%에 달할 만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

2) 2020년은 ‘시민의식과 공중질서’로 조사되었다.



〈표 4〉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2005~2010)

(단위: %)

보기	조사 년도	매우 자랑스 럽다	대체로 자랑스 럽다	자랑스 럽다	별로 자랑스 럽 지 않다	전혀 자랑스 럽 지 않다	자랑스 럽 지 않다	긍정-부 정%차이	모름/ 무응답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	2005	4.6	37.6	42.2	49.1	6.5	55.6	-13.4	2.2
	2010	3.7	46	49.7	45.2	4.9	50.1	-0.4	0.2
	2015	6.5	45.5	52	45.2	5.8	51	1	0
	2020	12	62.3	74.3	25.1	0.5	25.6	48.7	0.1
국제무대 에서의 정치적 위상	2005	2.9	26.4	29.3	51.9	16.4	68.3	-39	2.4
	2010	4.9	43.4	48.3	43.4	7.4	50.8	-2.5	0.9
	2015	7	42	49	43.1	7.9	51	-2	0
	2020	11.1	50.2	61.3	35.8	2.7	38.5	22.8	0.2
경제적 성취도	2005	5	44.2	49.2	39.8	9.3	49.1	0.1	1.8
	2010	7.8	56.1	63.9	33.9	1.7	35.6	28.3	0.5
	2015	12.9	56.3	69.2	28.7	2	30.7	38.5	0
	2020	11.8	56.5	68.3	29.6	2	31.6	36.7	0.1
군사력 수준	2005	3.1	27.5	30.6	41.1	14.1	55.2	-24.6	4.3
	2010	1.6	38.4	40	51.3	8.2	59.5	-19.5	0.6
	2015	4.7	40.5	45.2	49.7	5	54.7	-9.5	0
	2020	6.7	49.9	56.6	40.4	2.9	43.3	13.3	0.2
사회보장 수준	2005	1.3	15.7	17	55.9	25.2	81.1	-64.1	1.9
	2010	2.5	34.2	36.7	49	13.9	62.9	-26.2	0.5
	2015	4.5	41.5	46	46.7	7.2	53.9	-7.9	0
	2020	20.5	60.3	80.8	18.5	0.4	18.9	61.9	0.2
보건의료 수준	2020	52	43.9	95.9	3.7	0.3	4	91.9	0.2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적 대우	2005	1.4	17.1	18.5	53	25.6	78.6	-60.1	2.9
	2010	1.8	31.2	33	54.2	12.3	66.5	-33.5	0.5
	2015	3.3	31.4	34.7	51.3	14	65.3	-30.6	0
	2020	4.4	41.9	46.3	49.1	4.5	53.6	-7.3	0.2
한국 국민의 국민성 <sup>2)</sup>	2005	-	-	-	-	-	-	-	-
	2010	6.2	50.2	56.4	40	3	43	13.4	0.6
	2015	7.7	51.2	58.9	35.4	5.6	41	17.9	0
	2020	7.6	54.9	62.5	34.5	2.9	37.4	25.1	0.1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4〉에서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이 2020년 대폭 상승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2020년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이 지난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경제적 성취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중은 2015년에 비해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 성숙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사회보장 수준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과반일 뿐만 아니라, 2015년과 비교했을 때 10%p에서 35%p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한국인들이 느끼는 국가 자부심이 경제와 같은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제도적 우수성, 대외적 위상 등 질적 측면에서 기인하였으며, 한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모범국의 행보를 보인 것이 국가 자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해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라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한 것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가 자부심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표 5〉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자부심 간 관계

2020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이다			
		긍정	부정	중간	전체
사회보장 수준	자랑스럽다	556 (69.9%)	67 (8.3%)	177 (21.9%)	810 (100%)
	자랑스럽지 않다	103 (54.2%)	31 (16.3%)	56 (29.5%)	190 (100%)
	전체	669 (66.9%)	98 (9.8%)	233 (23.3%)	1000 (100%)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6〉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국제정치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 간 관계

2020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이다			
		긍정	부정	중간	전체
국제무대 에서의 정치적 위상	자랑스럽다	431 (70.2%)	52 (8.5%)	131 (21.3%)	614 (100%)
	자랑스럽지 않다	238 (61.7%)	45 (11.7%)	103 (26.7%)	386 (100%)
	전체	669 (66.9%)	97 (9.7%)	234 (23.4%)	1000 (100%)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사람의 70%가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한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인식한 사람은 54.2%가 문항에 대한 긍정 인식을 보였다. 또한, 한국의 국제정치 위상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사람의 70.2%가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한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61.7%로 적었다. 즉,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사람은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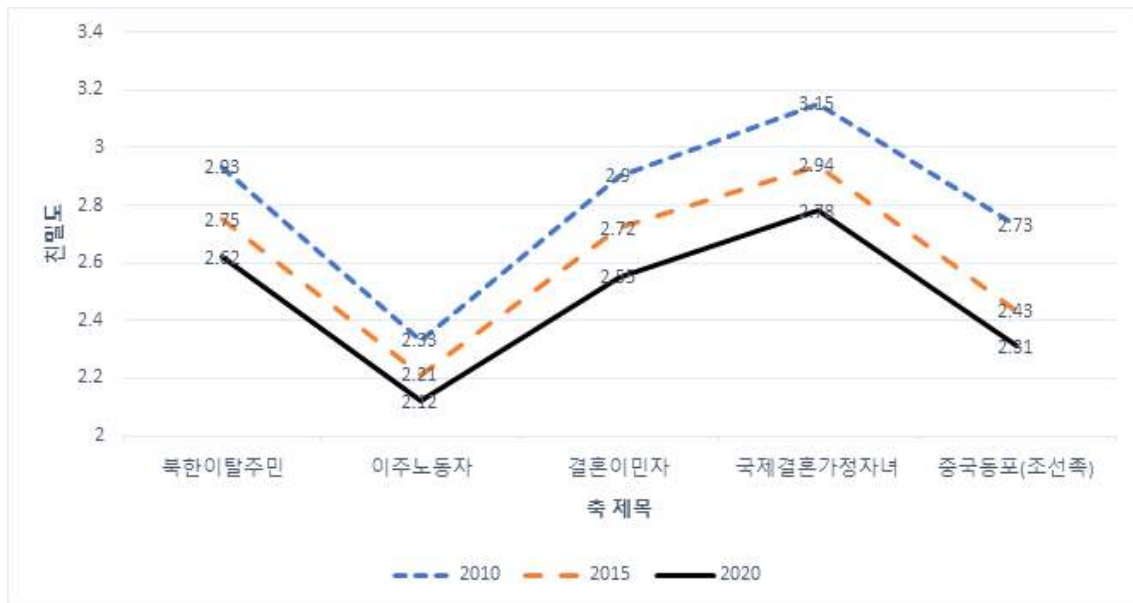
### 3. 한국인의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인식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백인은 합리적이며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흑인은 열등하고 비합리적인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김상학 2004),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동정적 시선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인은 국민인가, 동포인가, 합법 신분인가, 선진국 출신인가의 네 가지 기준으로 외국인을 상이하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황정미 외 2007).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에서는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국동포(조선족) 등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2020년 조사에서 한국 국민이 사회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집단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2015년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한국 사회가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는 다문화 소수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비교적 큰 친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친밀도 변화(2010~2020)

(4점 척도 평균값)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숫자가 클수록 집단에 대한 친밀도가 큼

그러나 눈에 띄는 점은 모든 집단에서 10년간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해온 추세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거리감이 시간에 따라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다문화 소수자



에 대해 ‘한국 국민이라고 느껴진다’,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고 답하여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을 드러낸 응답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감소한 반면, ‘남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남이라고 느껴진다’와 같이 먼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응답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멀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든 해에서 훨씬 많았고, 그 차이는 2020년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조선동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인식에서도 2010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이들을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거나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꼈으나,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는 이들을 가깝게 인식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조선족은 1990년대 이후부터 국내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한국인이 가장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다문화 유형이다. 그러나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강화되고 있으며, 매체에서는 조선족이 범죄자 캐릭터로 등장하거나 어수룩한 말투로 인한 유머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표 7〉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화(2010~2020)

(단위: %)

	조사 년도	한국 국민이라 고 느껴진다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	남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남이라고 느껴진다	먼 사회적 거리감	긍정- 부정% 차이	모름/ 무응답
북한이탈주민	2010	26.9	43.7	70.6	23	5.4	28.4	42.2	1
	2015	16.9	50.2	67.1	24.5	8.4	32.9	34.2	0
	2020	9.5	51.4	60.9	31.1	8	39.1	21.8	0
이주노동자	2010	7.4	30.8	38.2	47.8	13	60.8	-22.6	0.9
	2015	5.6	31	36.6	42	21.4	63.4	-26.8	0
	2020	2.1	26.7	28.8	52.5	18.6	71.1	-42.4	0
결혼이민자	2010	24.7	45.5	70.2	23.9	5.4	29.3	40.9	0.5
	2015	13.3	52.7	66	26.7	7.3	34	32	0
	2020	8.1	56.4	64.5	33.6	9.7	43.3	21.2	0.3
국제결혼가정자녀	2010	35.9	45	80.9	16.2	2.5	18.7	62.2	0.4
	2015	24.9	51	75.9	18	6	24	51.9	0
	2020	17.2	50.2	67.4	26	6.4	32.4	35	0.1
중국동포(조선족)	2010	17.9	42.1	60	33.8	5.7	39.5	20.5	0.5
	2015	10.7	34.9	45.6	41.6	12.9	54.5	-8.9	0
	2020	3.3	36.8	40.1	47.1	12.9	60	-19.9	0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4. 한국인의 소속감 변화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인식하는 인지적 측면, 해당 집단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측면, 그리고 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인 감정적 측면을 바탕으로 사회 정체성을 형성한다(Bergami and Bagozzi 2000).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에게 인지적·감정적 일체감을 부여하고, 소속집단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게 된다. 또한, 개인은 반드시 단일한 집단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합적이고 계층적인 소속감을 지니게 된다.

소속감은 개인에게 집단에 대한 자부심, 공동체 의식 등을 부여하고 내집단 간 응집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Hogg and Mullin 1999). 또한, 높은 사회적 소속감은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개인을 낮은 자존감이나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고(Kohnut 1984), 소속집단의 안녕과 공동체적인 변형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내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소속감이 커질 경우, 내집단 편향이 발생하고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Ellemers et al. 1999). 이질적인 소수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배척하는 분위기와 만연한 혐오 표현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엄격히 구분하고 외집단을 연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내집단 편향의 전형적인 현상이다(유란희·이태형 2019).

그렇다면 대한민국, 한반도, 아시아, 세계에 대한 한국인의 소속감은 어떻게 나타날까? 2005년부터 5년 단위로 조사된 한국인의 소속감을 살펴본 결과, 특정한 흐름이 관찰되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속감은 4개 조사에서 일관되게 증가하여 한국인이 대한민국이라는 내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소속감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조사에서 모두 하락하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2015년까지는 이전보다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 자신을 좀 더 가깝게 느끼다가, 2020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뜻한다.



〈표 8〉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소속감(2005~2020)

(4점 척도 평균값)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2005년	평균	3.03	2.82	2.43	2.13
	표준편차	0.77	0.83	0.88	0.84
2010년	평균	3.22	2.81	2.54	2.16
	증가 폭	0.19	-0.01	0.11	0.03
	표준편차	0.79	0.89	0.91	0.89
2015년	평균	3.29	2.98	2.69	2.4
	증가 폭	0.07	0.17	0.15	0.24
	표준편차	0.75	0.83	0.92	0.92
2020년	평균	3.33	2.76	2.57	2.32
	증가 폭	0.04	-0.22	-0.12	-0.08
	표준편차	0.69	0.78	0.84	0.84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9〉 연령 별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소속감(2005~2020)

(4점 척도 평균값)

연령대	연도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20대	2005	2.97	2.62	2.25	2.04
	2010	3.22	2.7	2.53	2.27
	2015	3.14	2.82	2.52	2.23
	2020	3.21	2.64	2.53	2.3
30대	2005	3.0	2.84	2.5	2.18
	2010	3.21	2.81	2.54	2.21
	2015	3.18	2.86	2.61	2.36
	2020	3.35	2.75	2.54	2.28
40대	2005	3.11	2.94	2.52	2.22
	2010	3.16	2.78	2.58	2.15
	2015	3.25	2.92	2.67	2.37
	2020	3.34	2.76	2.62	2.35
50대	2005	2.97	2.8	2.34	2.07
	2010	3.26	2.83	2.58	2.14
	2015	3.36	3.06	2.74	2.47
	2020	3.42	2.89	2.54	2.29
60대 이상	2005	3.12	2.89	2.55	2.13
	2010	3.26	2.91	2.46	2.04
	2015	3.49	3.18	2.89	2.52
	2020	3.3	2.78	2.57	2.32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05)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한국인의 소속감 변화를 연령 별로 살펴보면 조금 더 세부적인 경향성이 파악된다. 먼저 2020년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이 상승했다. 그러나 그 외의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소속감은 모든 연령대에서 2015년 조사 보다 하락하였다. 또한, 2015년 조사에서는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의 모든 영역에서 60대 이상 노인층의 소속감이 가장 높았던 반면, 2020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에서 50대가, 아시아인과 세계인에서 40대가 가장 높았다.

한편 20대는 2010년 조사를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한민국,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소속감이 낮았다. 또한, 전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의 세대에서 모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실업과 사회적 고립으로 침체된 청년층과 달리 활발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는 노년층이 더욱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황정미 2016).



5. 연령대별 다문화화 인식 변화

그렇다면 연령대별로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날까? 한국인에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0〉 연령별 다문화화 인식 변화(2010~2020)

(단위: %)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다민족· 다문화국가	잘 모르겠다
20대	2010	30.9	66.1	3.0
	2015	39.7	44.8	15.4
	2020	29.1	46.7	20.9
30대	2010	33.6	64.7	1.7
	2015	35.4	48.9	15.7
	2020	25.5	59.0	13.7
40대	2010	30.6	66.8	2.6
	2015	32.4	58.1	7.7
	2020	36.3	50.0	11.1
50대	2010	44.2	53.3	2.5
	2015	43.7	48.7	7.7
	2020	46.5	42.9	7.1
60대 이상	2010	48.3	49.7	2.0
	2015	41.0	46.7	12.5
	2020	50.4	31.3	13.2
전체	2010	37.1	60.6	2.4
	2015	38.9	49.7	11.6
	2020	39.1	44.4	13.1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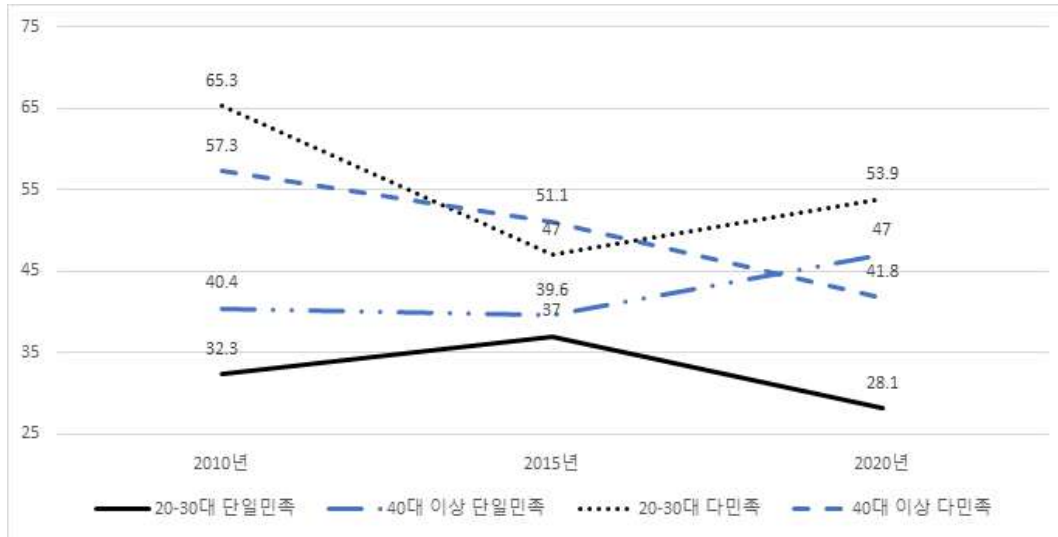
우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다문화국가보다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연령대별 응답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계열로 분석했을 때 보다 입체적인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대와 30대의 청년층에서는 2015년에 일시적으로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가, 2020년 조사에서는 다시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민족·다문화국가 응답 비중이 2010년 수준만큼 회복하지는 않았으나, 2015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방적인 태도가 포착되었다.

반면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하였다. 40대의 경우 2010년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한 비율이 66.8%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2020년 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한 40대는 절반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2010년에는 절반 가까이 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하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31.3%만이 다문화국가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4〉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 변화: 20~30대와 40대 이상(2010~202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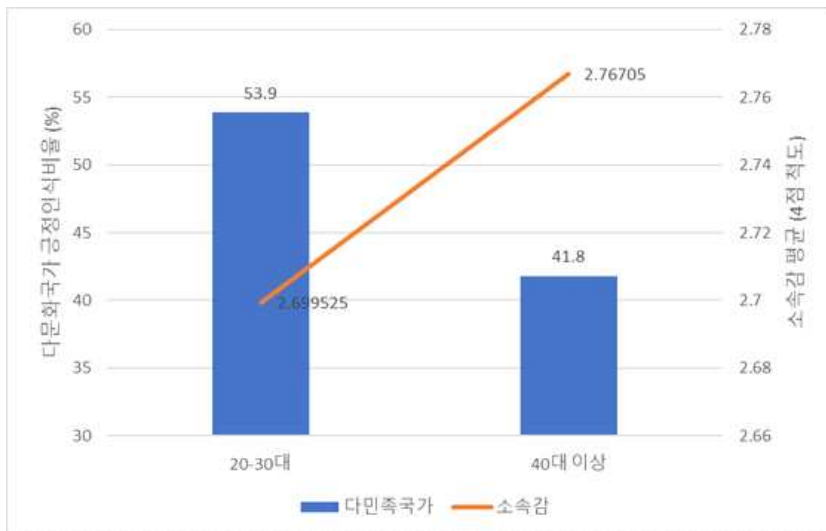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흥미로운 것은 앞서 대한민국, 한반도, 아시아, 세계에 대한 더 강한 소속감을 보이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소속감이 낮은 젊은 층에 비해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5〉 한국의 다문화화 긍정 인식비율 및 소속감 평균 비교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 주: 소속감 평균은 대한민국, 한반도, 아시아인, 세계인에 대한 4점 척도 평균값임

즉, 한국 및 세계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고 해서 한국의 다문화화를 지지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소속하려는 주체’의 차이에서 기인했음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부터 세계에 대한 ‘나’의 소속감은 사회의 주요 구성원과 세계 무대로의 개척자 혹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적극성과 주체성을 내포한다. 반면 한국인의 다문화화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주류로 속한 사회에 들어오려는 낯선 타인에 대한 태도이다. 전자가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 되는 서구 사회로의 글로벌화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경계의 대상인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한국의 글로벌화 구현을 위한 ‘세계 속의 한국’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반해, ‘한국 속의 세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홍봉선·이영아 2011)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한반도, 아시아, 세계로의 소속감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6. 교육 수준별 다문화국가 지지 변화

교육 수준별로 한국의 다문화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고학력층에서 다문화국가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교육 수준별 다문화화 인식

(단위: %)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다민족· 다문화국가	잘 모르겠다
2010년	중졸 이하	52.1	46.1	1.8
	고졸	36.2	61.8	2.0
	대학재학 이상	32.5	64.6	3.0
2015년	중졸이하	44.3	39.9	15.8
	고졸	38.8	50.4	10.8
	대학재학 이상	37.0	52.0	10.9
2020년	중졸 이하	52.2	30.4	13.0
	고졸	40.5	41.3	13.5
	대학재학 이상	33.8	51.3	12.7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0, 2015)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단일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한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학력에 따른 격차는 2010년에 비해 2015년에서 좁혀졌다가, 2020년에는 다시 예전 수준의 격차로 돌아왔다. 다민족·다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답한 응답의 경우 전 학력 수준에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다문화국가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5년에 비해 2010년과 2015년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유보적 입장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12〉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위협에 대한 학력 수준별 인식(2020년)

(단위: %)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우리나라 일자리 위협		
	긍정	그저 그렇다	부정
중졸이하	53.60	33.3	13.00
고졸	47.80	26.5	25.80
대학재학 이상	35.10	36.6	28.20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를 지향하고 다민족·다문화국가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한 인식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학력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50.1%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과 방문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농림업, 어업, 제조업에서 단순 기능 인력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해왔다(뉴시스 2017). 또한, 2017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전체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천만 원가량 낮기 때문에(국세청 2019), 이들과의 직접적인 일자리 경쟁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저학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 7. 다문화국가 지지자의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7가지 항목에서 다문화국가 지지자는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 지지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국가 지지자는 단일민족국가 지지자에 비해 이주민에 대해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2015년과 2020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국가 지지자는 단일민족국가 지지자보다 이주자를 통해 문화가 풍부해지며, 어느 국가든 인종, 종교, 문화가 다양해지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찬성하였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인종,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항에 대해 단일 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응답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타문화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다민족국가 지지자는 단일문화국가 지지자들에 비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한국의 다문화화 인식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2020년)  
(5점 척도 평균값)

	외국인 범죄율 증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일자리 위협	국적취득 외국인에게 동등권 보장	이주자는 다른 전통과 습관 버려야	외국인 수용에 한계	이주자 늘면 문화 풍부해짐	문화다양성은 국가경쟁력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	3.48	3.28	3.37	3.06	3.68	2.94	3.21
다민족·다문화국가	3.26	3.1	3.59	2.77	3.48	3.37	3.64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 연구센터·중앙일보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20)



〈표 14〉 한국의 다문화화 인식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2015년)

(5점 척도 평균값)

	외국인 범죄율 증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인 일자리 위협	국적취득 외국인에게 동등권 보장	이주자는 다른 전통과 습관 버려야	외국인 수용에 한계	이주자 늘면 문화 풍부해짐	문화다양성은 국가경쟁력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3.58	3.19	3.43	2.96	3.62	2.87	3.22
다민족· 다문화국가	3.31	3.1	3.7	2.78	3.47	3.29	3.58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중앙일보 공동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2015)

7가지 다문화 수용성 항목 중 2020년과 2015년 조사 모두에서 다문화국가 지지자와 단일민족국가 지지자의 인식 차이가 가장 작은 항목은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한국인 일자리 위협이었다. 다문화국가 지지자들도 단일문화국가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해 한국인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국가 지지자가 이민자들의 권리, 문화 존중, 다문화의 장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으나, 일자리에서는 단일민족국가를 지향하는 이들과 다르지 않게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조사에서 타문화와 타인종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두려움은 어느 정도 감소하였으나, 일자리나 사회적 권리와 같은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는 배타성이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 III. 나가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는 천여 명 이상의 응답자들을 상대로 2005년부터 동일한 문항의 시계열 자료를 추적하였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풍부한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 조사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전후로 관찰된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인 태도가 2020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한국인의 다문화 피로도나 냉담주의는 다문화 열풍이 불던 10여 년 전 이미 우려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2015년 조사에 이어 2020년에도 나타난다면,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다다른 한국에 알맞은 처방과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분석 결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20년 한국이 다



문화 사회가 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5년보다도 감소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모든 다문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친밀도가 역대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인 태도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배타성 강화’라는 일률적인 진단이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을 충분히 대변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국인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질문의 양상에 따라 답변이 다면성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다문화 사회를 원하는 한국인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다문화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점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고, 외국인 이주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가 더욱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자녀의 국제결혼을 거부하는 비율은 줄어들어 외국인에 대한 무지나 막연한 공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적·통상적 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배타성이 강화된 것은 한국인들이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외국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외국인 유입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받아들이는 경향 역시 증가하였다. 즉, 한국인은 다문화와 외국인을 문화·정서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선주민에 대한 경제적 위협, 제도와 권리 제공에 대한 부담 등의 실용적 이유에서 다문화 냉담주의를 보이고 있었다.

한국이 점점 다민족·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이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벽으로 2056년이면 한국은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을 것이 예상되며, 이는 국민연금 고갈, 국방인력 절벽, 지방 소멸 위기 등 다양한 현실 문제와 직결된다(통계청 2019a).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외국인 수용은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선주민들을 설득하고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은 한국인이 다문화 사회의 비용과 편익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인에게 다문화 소수자와 외국인에 대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안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다문화 사회의 객관적인 위기와 기회를 공론화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다문화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처방일 수 있다. 다문화가 야기할 수 있는 피로와 불편함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지 않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선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1. “유럽, 다문화주의 정책실패 파장 어디까지.” 4월 20일.
- 국세청. 2019. 2019년 국세통계연보.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제3회 『사회연구』 학술상 수상논문, 169-206.
- 김영란. 2013.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한국사회』 14(1): 3-30.
- 김은미 · 조운용 · 임영호 · 송보영. 2015. “다문화 범죄 보도에서 기사 구성 방식과 출신국에 대한 태도가 댓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6): 107-136.
- 김초희 · 김도연. 2019. “한국 텔레비전 다문화 프로그램 속 다문화 구성원 및 외국인의 이미지: 인종, 출신지, 다문화 구성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4): 66-109.
- 김혜순. 2006. “서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시대.”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한국사회학회.
- 〈뉴시스〉. 2017. “[외국인노동자 100만시대] '값싼' 외국인 노동자는 옛말?...高학력·사무직 비중↑” 3월 13일.
- 법무부. 2019. 2019년 12월 통계월보.
- 설한. 2010. “김리카(Kymlicka)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좋은 삶, 자율성, 그리고 문화.” 『한국정치학회보』 44(1): 59-84.
- 오경석. 2010.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 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7: 190-222.
- 유란희 · 이태형. 2019. “공동체의 소속감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61-1381.
-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 나타난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의 시계열적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2): 205-241.
- 통계청. 2019a. 『2018 인구주택총조사』.



- \_\_\_\_\_. 2019b.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 한건수. 2010. “다문화 사회 진입한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월 18일.
- 홍봉선 · 아영아. 2011.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165-187.
- 황정미. 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 에 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0.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한국의 다문화교육 아젠다에 대한 고찰.” 『담론 201』 13(2): 93-123.
- Bergami, Massimo and Richard P. Bagozzi. 2000. “Self-categorization, Affective Commitment and Group Self-Esteem As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in the Organ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9(4): 555-577.
- Bridges, George and Rosalind Brundt. 1981. *Silver Linings: Some Strategies for the Eightie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Ellemers, Naomi, Paulien Kortekaas, and Jaap W. Ouwerkerk. 1999. “Self-Categorisation, Commitment to the Group and Group Self-Esteem as Related but Distinct Aspects of Social Ident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2-3): 371-389.
- Hall, Stuart. 1981. “The Whites of Their Eyes: Racist Ideologies and the Media.” In *Gender, Race, and Class in Media: A Critical Reader*. Edited by Gail Bridges and Jean M. Humez, 81-84.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Hogg, Michael A. and Barbara A. Mullin. 1999. “Joining Groups to Reduce Uncertainty: Subjective Uncertainty Reduction and Group Identification.” In *Social Identity and Social Cognition*. Edited by Dominic Abrams and Michael A. Hogg, 249-279. Oxford: Wiley-Blackwell Publishing.
- Kohut, Heinz. 1984. *How Does Analysis C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New York: Clarendon Press.



■ **저자:** **최지혜**\_성균관대학교에서 2019년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복지, 의료, 빅데이터, 교육 등 사회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유치원 3법의 정책변동과정 연구 - 신속처리안건제도와 상호적 대화를 중심으로-”(2020, 공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및 의료 플랫폼의 사회적 쟁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시범사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2020, 공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2019, 공저)가 있다.

■ **저자:** **조민호**\_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 (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정책평가, 복지정책, 교육 및 고용정책, 이민정책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강사법 정책결정과정 분석” (2020, 공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정책변동과정 분석” (2020, 공저), “빈곤 노인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 (2019, 공저),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Durunuri Programme on Low-wage Workers’ Social Insurance Coverage in South Korea” (2019, 공저), “행복(공공)기숙사 도입이 대학가의 임대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활용하여” (2018, 공저), “Exploring the Acculturation Profiles and Adaptation of Children of Multiethnic Families in South Korea” (2016) 등이 있다.

■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6) jwseo@eai.or.kr

-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0년 10월 22일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생활세계: 결사체, 다문화, 일과 삶, 소통 편  
“한국인 다문화 인식의 다면성” 979-11-6617-034-8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